

유럽 향하는 'K방산'... 폴란드에 10조원대 수출 '눈앞'

폴란드, K2 전차 180대·FA-50 전투기 48대 구매계획 밝혀
말레이시아·노르웨이 등도 수출 앞뒀... 'K방산' 몸집 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위기감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키우기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 방산 제품의 대규모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군사전문매체 디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지 주간지 시에치(Sieci)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FA-50 전투기 48대와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우리는 3개 비행대를 편성할 수 있는 경공격기(FA-50) 48대를 구매하고자 한다"며 "첫 번째 FA-50은 내년엔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 180대의 흑표전차를 도입할 예정으로 조만간 첫 주문을 할 것"이라며 "올해 중에 첫 흑표전차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K2 흑표전차의 생산업체인 현대로템 등에 따르면 초기 긴급 물량으로 2025년을 납기일로 한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한다. 여기에 2030년까지 480대와 2031년 이후

로 추가 340대를 더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000대의 수출이 이뤄지는 셈이다. K2 흑표전차는 2008년 개발된 육군 차세대 전차로 한국군 납품가 기준으로 80억원대의 규모다. 1000대의 수출이 성사되면 약 10조원의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역사상 최대 물량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현대로템이 유럽에 최초로 수출하는 사례가 된다.

폴란드로 48대 수출을 앞두고 있는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고 있는 경공격기로 약 500억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폴란드에만 48대의 수출이 성사되면 약 2조4000억원의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어 브와슈차크 장관은 곡사포(K9 자주포)도 구매할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국산 무기 체계로 최대 670대 규모로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방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우



폴란드가 구매 예정인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

한국항공우주산업

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접경국이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민감하다.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2% 정도의 비중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

업체들은 폴란드 국방부와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MOU) 등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 제품을 유럽에 대규모로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로 'K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9월

에는 말레이시아로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FA-50 수출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인 17억 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 등도 예정돼 있어 'K방산'의 몸값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3초컷 키워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 물류 인프라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보고서... "인도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현대화 정책 주목해야" 건설장비 수출,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등 기회 확대될 전망. 인프라 문턱 낮춰 투자 유도.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리센터 방문해 여름철 대비상황 점검...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 앞두고 철저한 대비태세 강조. 7월 2주 이후 전력수요, 90GW 미만으로 유지 중... 예비전력도 10GW대 이상으로 안정적. 박 차관 "7월 4주부터 8월 3주의 약 4주간 무더위가 본격화... 긴장감 낮추고 전력수급 관리 나서야."

▶ LG전자, 지난해 이직 확 늘었다... 2만894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2021-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30-50세에서 가장 많은 증가. 계열사 전환해차량작업인 설립 등 미래 준비 위한 조정. 신규 채용도 늘어... 1만450명→1만938명, LG전자 재직자 7만4337명.

전문가 체감 제조업 경기 '흐림'... 반도체 올고, 자동차 웃는다

산업연 조사, 7월 제조업 경기 PSI 73... 2년여 만에 최저

전문가들이 국내 제조업 경기가 석 달 연속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반도체, 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전망도 크게 악화됐다.

24일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 주요 233개 업종에 대한 '전문가 서베이(P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 이 데이터 수집 기업 애플리케이션 및 매트릭스 등에 의뢰해 전문가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PSI는 73으로 2020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조업 PSI는 4월 102를 기록하며 개선 전망이 우세했으나 5월

에 91을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고, 6월 76, 7월 73으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 78, 수출 84를 기록해 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나 전월(내수 76·수출 80)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소폭 상승 전환됐다. 채산성도 70을 기록하며 여전히 100을 넘기지 못했지만 3개월 만에 전월(69) 대비 1p 상승했다.

반면 생산과 투자액은 각각 86, 87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조선, 바이오헬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기준치를 넘기지 못했다. 특히 반도체(38), 휴대폰(53) 등이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적정에서 차량들이 출고기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각각 40p, 20p 하락했고, 섬유업종도 68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5p 내려앉았다. 3개월 연속 승승장구하던 조선 업종도 전월

보다 8p 하락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반면 자동차는 109로 24p 급등했고, 바이오헬스 업종은 100으로 14p 상승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8월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제조업 전망 PSI는 전월(77)보다 더 하락한 74에 그치면서 기준치를 상당폭 밑돌았다. 항목별로 내수(78)와 수출(86)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넘기지 못했고, 생산과 투자액도 각각 87, 86을 기록하며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업종별 전망은 자동차 업종만이 기준치를 넘기며 개선될 전망을 냈다.

8월 자동차 업종의 전망 PSI는 112로 전월(94)과 비교했을 때 기준치를 넘겼을 뿐 아니라 18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도체(48), 철강(50), 디스플레이(52) 등 업종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대리점 갑질' 지멘스 제재 공정위, 과징금 4.8억 부과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멘스가 의뢰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멘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4억8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저탄소 사회의 미래 금융으로 지원하다

산업은행의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성장을 지원합니다

<p>KDB 탄소스프레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탄소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육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대응자금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및 저탄소 사업 지원대상(환경부) <p>총 운용규모 5조 원 이내 권리유대 (연상기간: 권역 기종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우대규모 최대 연 2.6%p, 연도 소산 시까지)</p>	<p>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 초기단계 탄소중립 핵심기반 분야인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및 그린혁신기술·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대응자금과 산업은행이 함께 지원 조성 <p>총 운용규모 3,000억 원 이내 권리유대 (우대규모 연 0.75%p, 연도 소산 시까지)</p>
--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3개월 유통수익률, 산금채 유통수익률 등) + 가산금리(고역 신용도에 따른 신용리스크프리미엄 등) - 우대금리로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산업은행 총본금인 심의일 제2022-04-005호(2022.04.25, 2022.04.25-2023.12.31)
 * 산업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하여 중립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전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관한 추가 상세사항은 영업점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최종 결정됩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연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위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도성 상환의 경우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 원까지는 수입안지 비용으로, 5천만 원 초과시 대출금비용 수입안지 비용이 적용 됩니다. (수입안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또한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상환은 일시상환방식 또는 분할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며, 대출금 상환방식은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에 맞춰 납입합니다.
 * 대출금의 조기상환시 기간연장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시 면제됩니다. * 기간연장상환수수료 = 기간연장상환금 x 기간연장상환수수료율(변동금리 연 1.4%)x 대출잔액(대출기간)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이자(연22.04.25) 기준 대출금리 +3% 최고 연 15%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연장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관하여 중립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www.kdb.co.kr),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의 내용은 [22.04.25]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